2020년 한국인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
'가족' 의미 형성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발 표 자 | 김해원, 김은영

목 차

01
인터뷰 방법을 통한 가족다양성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 개념도

02 잠정적발견
2020년 한국인들에게 '가족' 개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03 잠정적발견
2020년 한국인들에게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04 잠정적발견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는 가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05 잠정적발견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06 잠정적발견
미디어의 다양한 가족 재현에 대한 제언

01

인터뷰 방법을 통한 가족다양성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 개념도

연구문제 & 연구방법론

인터뷰 방법을 통한 가족다양성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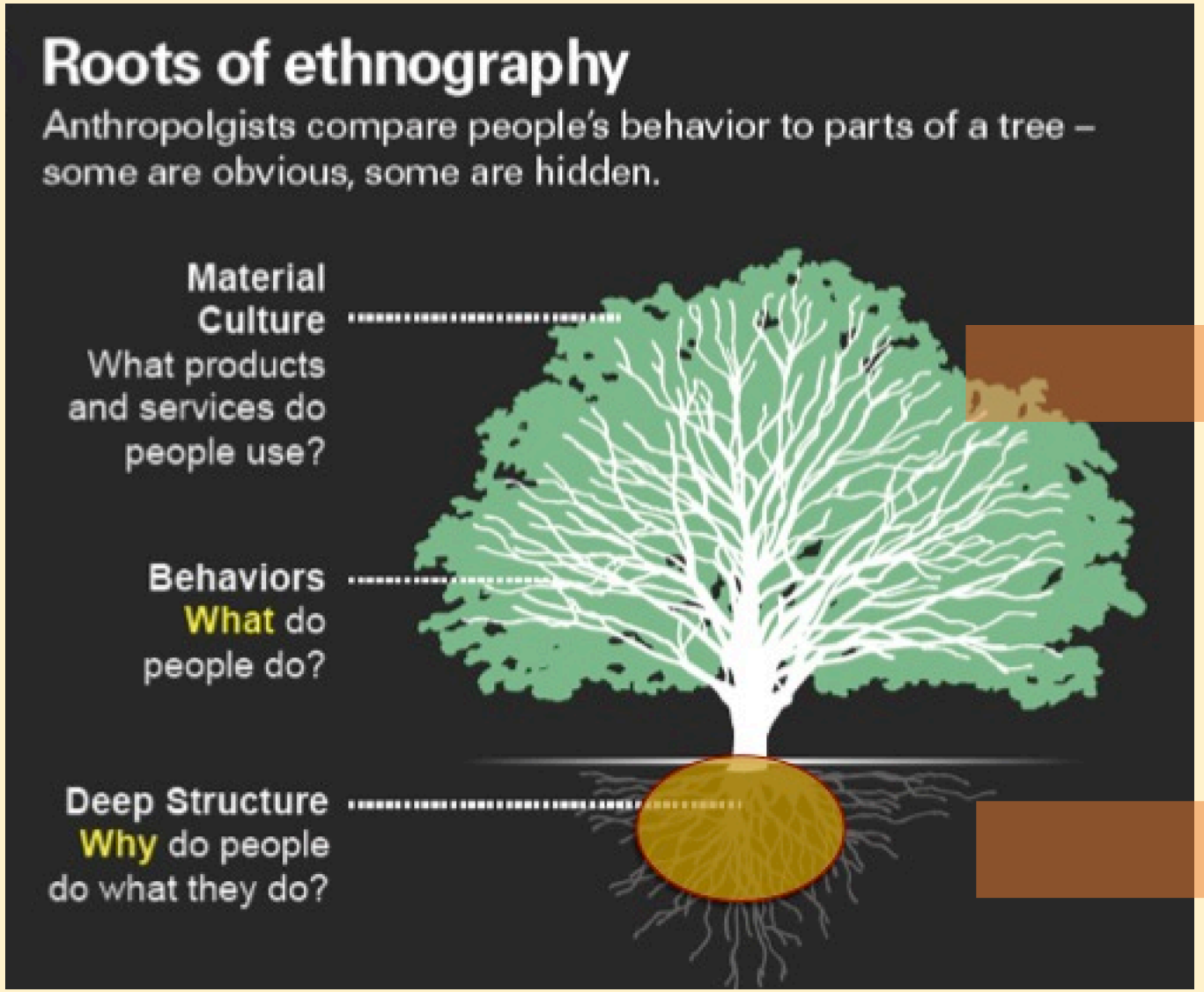
연구문제

- 2020년 한국인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들에게 가족의 개념과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까?
- 미디어에 재현된 '가족'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이들에게
  가족 및 가족다양성 개념을 인식,이해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연구방법- Qualitative research

-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FGI,
- 다양한 가족 형태의 당사자들
  FGI 및 심층인터뷰,
- 가족다양성에 전문적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과 미디어 제작진 심층인터뷰

인터뷰 방법을 통한 가족다양성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



- ✓ 가족 개념 정의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경험
- ✓ 가족다양성 교육에 관한 기억/경험/해석
- ✓ 미디어 이용, 미디어 재현에 관한 인식/평가

2020 한국인들의
가족/가족다양성
Meaning making

인터뷰 방법을 통한 가족다양성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

세대별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 상세
10대 집단1: 고등학생 남 5명 집단2: 고등학생 여 6명 집단3: 중학생 남 3명 & 여3명 (지역) 집단4: 중학생 여 5명
20대 집단1: 남자 6명 집단2: 여자 6명 집단3: 남2명, 여3명
30대 집단1: 비혼 남녀 6명 집단2: 기혼 남녀 5명
40대 집단1: 비혼 남녀 6명 집단2: 기혼 남녀 6명
50대 집단1: 남녀 5명 집단2: 남녀 6명
60대 집단1: 미 결혼 자녀를 둔 남녀 5명 집단2: 기 결혼 자녀를 둔 남녀 6명
합계 총 15팀 82명

당사자 인터뷰

당사자	인터뷰 대상자 상세	
한부모/이혼	**4명**	한부모 가족의 부모 (이혼 경험자)
다문화	**3명**	다문화가족 부모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출신 각 1명)
입양가족	**4명**	입양가족 부모
공동체 가족	**3명**	공동체 가족
당사자 자녀들	**4명**	조손/재혼/이혼/다문화 가족 자녀
합계	총 18명	

인터뷰 방법을 통한 가족다양성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

전문가 인터뷰 진행사항

구분	숫자	인터뷰 대상자 상세
학계 정책 시민단체 (4명)	**1명**	언론학 – 김*희 박사
	1명	정책기관 – 김*란 연구원
	1명	시민단체 – 엄*희 활동가
	1명	사회학 (가족사회학자 **섭외 예정**)
콘텐츠 제작자 (10명)	**3명** PD	- 예능 (김*욱 PD) - **시사/교양 PD 진행 예정** - **드라마 PD 진행 예정**
	3명 작가	- 예능 (김*경 작가) - 시사/교양 (김*진 작가) - **드라마 작가 섭외 예정**
	4명 1인 방송 크리에이터	- 뚜부tv : 재혼가정 - 같이사는사이 : 공동체가정 - 하늬tv : 한부모가정 - 4남매해피육아 : 입양가정
합계	총 14명	

인터뷰 방법을 통한 가족다양성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 개념도

세대별 FGI

당사자 심층인터뷰

전문가 심층인터뷰

인터뷰 내용에 의거한 잠정적 연구결과

Big Themes

- ✓ 2020 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 ✓ 2020 한국인들에게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 ✓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Small categories

- ✓ 중/소 카테고리들로 정리

2020 Korean's meaning making map "What is Family?"

미디어 제작진과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제언

잠정적 발견

2020 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20 한국인들에게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는
가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 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법적인 혼인 관계와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에 거리낌 없음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 옵션이다

2. 변화하는 가족 개념에 대해 자발적 vs 비자발적 수용 중

10대,20대,30대는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가족 개념을 수용하고 실현하려함
40대는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을 거부하는 편, 5-60대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

3. 가족 개념을 자신과 타인에게 이중적으로 적용 중 (1자 효과 vs 3자 효과)

-가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를 평가할 경우에는 제 1자 효과(나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가족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를 평가할 경우에는 제 3자 효과(나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4. 가족다양성 및 가족 개념에 대한 무관심 vs 교육적 효과

가족다양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의견이 다수… 무관심한 편이나
공교육에서 가족다양성 교육을 받은 세대에게는 교육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음.
수업에서 가족다양성 개념을 배운 것을 회상하고,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음

2020 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법적인 혼인 관계와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저희 세대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보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혈연 그게 아니라도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게 많고, 애들도 학교 때문에 나가게 되면 같이 밥 먹고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그런 거 같아요.
같이 밥 먹고 내 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게 가족이 아닌가....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내 자식으로 될 수가 있고 내 부모가 될 수가 있고 함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화, 50대 여성)*

예전에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새로운 가족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거를 영화적으로 되게 잘 표현한 거 같아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살면서 감싸주고 서로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혈연이 아니라도
물론 혈연 가족이 낫기는 하지만 그런 가족을 포함해서 아까도 젊은 사람들 동성애 커플 이런 것도 얘기 했나요?
*동성애 커플이 입양까지 다 허용하는 그런 가족까지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는 쪽이라서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어요. (김*성, 50대 남성)*

저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혈연 관계에 그런 얘기하는 게 가족의 일반적인 정의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바뀌었고 실제로 개인이 어떤 생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성 존중 되어야 하고
*지금의 가족으로 봐서는 정서적인 유대감, 힘들거나 기쁘거나 할 때 공감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조금 더 가족의 정의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진, 50대 남성)*

대체적으로 말씀 하시는 것처럼 혈연이나 그런 전통적인 가족 인 거 같은 생각을...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족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간 건지는 몰라도 내 느낌이나 내 마인드가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족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통적이지 않고 나는 오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김*구 , 60대 남)*

*굳이 혼인 안 하더라도 한 지붕 안에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돈 벌어 오잖아요 .가족도 그런 것도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수, 남 고등학생])*

*굳이 같이 안 살아도 같이 생각하는 의지하고 연락 하면서 그런 거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호진이가 말을 한 것처럼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어도 의형제 같은 말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딱히 등록이 안 되어도 얘가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곽*영, 남 고등학생)*

같이 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랑 자주 교류하고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느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제가 좋아하는 형님 동생들이 가족 말고 많은데 오히려 멀리 떨어진 가족보다 훨씬 더 자주 왕래하고 그 분들이 더 가족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도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혈연이 아닐지라도 마음이 더 친밀함을 느끼는?*** *더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이*일, 50대 남)

2020 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자신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집, 휴식을 함께하는 반려자로서의 '가족'을 추구(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 옵션이다)

결혼하면 내가 안고 갈 손해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굳이 안 해도 지금 혼자 잘 지내는 걸 생각하면
*굳이 결혼해서 내가 내 발목에 수갑을 채울 일이 있나? 싶어서 지금은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박*연 20대 여성)*

*결혼제도가 여자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생각해요.(장*리, 20대 여성)*

국내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사회생활 하는 게 너무 제한이 많고 경력단절이 워낙 심해서.
*그런 것도 많이 지켜봐서. 오히려 결혼을 하고 살면 국내에서 살기보다 기회가 되면 해외에서 살고 싶어요. (이*정 20대 여성)*

(결혼 하고도 따로 살고픈 이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옆집하고 옆집에 산다든지 따로 살고 싶어요.
*자기 만의 공간을 되게 중요시 해가지고 같이 살면 안 맞는 점도 분명히 있을 테고 많이 싸울 거 같아서.(박*민, 여 중학생)*

최근에 주변에 사회적 이슈를 보면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고
저는 평생 한 사람이랑 사는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결혼을 아에 안하고
강아지나 고양이나 애완견 키우면서 연애하면서 살고 싶고.
*결혼을 하면서도 어떤 소속감, 단체에 얽매여서 그 책임감을 떠안고 싶지 않아요. (정*우, 여 고등학생)*

물론 마음 맞는 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 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직장을 가질 거 아니에요.
직장을 가지고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 되게 널부러져서 쉬고 싶은데 가족이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하면
*저 아닌 다른 사람을 또 챙겨야 하잖아요. 지금 나이의 생각으로써는 그게 귀찮은 거에요. 혼자 편하게 살 거 같아요. (안*주, 여 중학생)*

저는 결혼은 하는데 애는 없고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제가 동물을 좋아해 가지고 ...아이 대신 강아지 한 마리랑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배우자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노*영, 여 중학생)*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같아요. 가족의 형태에서 공통적인 대가족에서 지금은 핵가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게 있었던 거 같고,
거기서 나타는 게 결손 가족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이러한 표준적인 그런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이런 가족이 아닌 결손 가족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보듬어 주고 신경 써 줘야 하는
*뭔가 부족한 가족 이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는 지금 봐서는 잘못 되는 거 같고 현재 나가는 방향성이나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김*성, 50대 남성)*

2020 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 변화하는 가족 개념에 대해 자발적 vs 비자발적 수용 중

○ 전반적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가족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을 보이지만,
다양한 가족의 경험 유무와 해당 경험에 대한 평가가 가족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인터뷰 대상자들은 사회 변화 혹은 미디어 시청 경험을 언급하며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함.

o 사회 변화를 근거로 가족 개념이 변하고 있음을 설명

*"세상이 바뀌어 가면서 (중략) 그러니까 사람이 (가족 다양성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예요."(김*연, 60대, 님)*

*"내 자식이 그런게 아니라 사회가 개인적으로 바뀌다보니까 애들도 그렇게 많이 바뀌고."(김*진, 50대 여)*

*"옛날같으면 진짜 큰 일인데 요즘은 이혼한 사람도 많고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한번 두 번 갔다 와도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중략) 요즘은 그걸 누가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김*이, 50대 여)*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원*주, 30대 여 , 기혼)*

o 미디어 시청 경험을 근거로 가족 개념이 변하고 있음을 설명

*"옛날보다는 다양한 가족 행태에 대해서 드라마, TV에도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게 커진 것 같아요."(김*이, 50대 여)*

*"저런 프로그램(입양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계속 많이 방영이 되고 (중략)
지금 물론 시대가 변했지만 그런 (가족다양성) 교육을 필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정*욱, 60대 남)*

*"최근 들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TV에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들었고 그만큼 사회가 변한다는 얘기이고
시대가 변한다는 얘기니까 (가족) 다양성은 인정하는 얘기가 되는데."(김*연, 60대 남)*

*"내가 옛날에 보던 TV프로하고 다르게 가정에 대한 다양성을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구나. (중략)
우리가 자라 올 때 어떤 미디어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다르게 변화해서."(이*현, 40대 기혼)*

*가정 시간에 핵가족 대가족 이런 개념은 배웠지만 그렇게 요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거를 배운 적은 없고 지금 다양한 가족이 형성 되는 거를 매체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틀을 깨는….자연스럽게 방송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저런 가족 형태가 있지 하고 받아 들여지는 거 같아요. (강*옥, 50대 여성)*

2020 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 변화하는 가족 개념에 대해 자발적 vs 비자발적 수용 중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같아요. 가족의 형태에서 공통적인 대가족에서 지금은 핵가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게 있었던 거 같고, 거기서 나타는 게 결손 가족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이러한 표준적인 그런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이런 가족이 아닌 결손 가족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보듬어 주고 신경 써 줘야 하는 뭔가 부족한 가족 이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는 지금 봐서는 잘못 되는 거 같고 현재 나가는 방향성이나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김윤성, 50대 남성)

10대,20대,30대는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가족 개념을 수용하고 실현하려 함

저는 일단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어서 혹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딩크족으로 살고 아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떠안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그런걸로 책임감이 생기는게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정*우, 여 고등학생)*

제가 같이 살고 싶은 친구는 꿈이 비슷한데 독신자빌리지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서로 교류하면서 건강 여부를 체크하고 도움을 주는 마을을 만드는게 꿈이에요
*1인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평수에, 작지만. 그 옆집에는 친한 친구가 살고 그 동네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 (남*미, 여 30대 비혼)*

*특별하지 않지만 동거가 낫다고 생각하고, 법률 혼에서 오는 법적인 의무를 다 지면서 시작을 하기가 … (최*영, 40대 비혼 여성)*

40대는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을 거부하는 편, 5-60대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

다양성 얘기는 최근 들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TV에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들었고 그만큼 사회가 변한다는 얘기이고 시대가 변한다는 얘기니까 다양성은 인정하는 얘기가 되는데
아직 한국 사회에는 좀 기본적인 바탕이 그거를 인정 하기가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 거 같고 점점 서서히 인정하는 식으로 가고 그런 거고
가족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가정이 아닌가 이혼도 가족이고 다 가족이면 그러니까 저 개인으로 생각에서는 법적인 테두리에 있는 가족이 가족이다.
*기본이니까. 너무 확대 하면 개판 되어 버리니까 너무 많을 테니까 저의 생각에서는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김*연, 60대, 남성, 미혼자녀)*

*처음에는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게 참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 자신도 많이 너그러워진 거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가족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제 정의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한 거는 '가족 같다'고 하지*
*가족은 아주 친한 사람은 가족 같이 오히려 친형제보다도 이웃사촌이 더 가까우니까 가족 같다고 하지 가족은 아니잖아요"(조*경, 60대, 미혼자녀)*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혈연 관계 아니라도 같이 살면 그것을 가족으로 많이 받아 들이는 거 같아요. 이 사회가 애들도 진짜 안 낳는 부부도 있고 아니면 한명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좀 이기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은 거 같아요. 꼭 혈연 관계는 아니라도 그냥 같이 대화가 통하고 그러면 그거를 가족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 같은데 60대 노인 분들은 거의가 아니라 다 혈연 관계가 되어야지 내 가족이라고 딱 생각을 하지 아무리 주위 분들이 나하고 코드가 잘 맞고 나한테 잘 해줘도 혈연 간의 가족은 아니고 '가족 같은 관계다' 일 뿐이지 가족이라고는 생각들은 안 하는 거 같아요 (이*임, 60, 미혼자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안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딸부터도. 난 내가 다 벌어서 나 하고 싶은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실컷 하다가 혼자 살지 안할거야 해서 왜 했더니 애기는 누가 키워줄건데 이러는거에요. 엄마가 키워주면 결혼하고 이러는거에요.. 우리는 그냥 결혼해야 되나보다 하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뭘 맞춰봐서 안되면 안하는구나 하고 그러더라구요. 만약에 35, 36 됐는데 안간다고 하면 제가 봐줘야겠죠. (김*진, 50대 여)*

2020 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3. 가족 개념을 자신과 타인에게 이중적으로 적용 중 (1자 효과 vs 3자 효과)

-가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를 평가할 경우에는 제 1자 효과(나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가족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를 평가할 경우에는 제 3자 효과(나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 1자효과적 인식: 본인(자신이 속한 세대)은 다른 사람(다른 세대)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

*처음에는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게 참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 자신도 많이 너그러워진 거 같아요. (김*연, 60대 남)*

*나는 그런 부분에서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통적이지 않고 나는 오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김*구 , 60대 남, 미혼자녀)*

- 3자효과적 인식: 다른 사람(다른 세대)는 본인(자신이 속한 세대)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생각

아직 한국 사회에는 좀 기본적인 바탕이 그거를 인정 하기가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 거 같고 점점 서서히 인정하는 식으로 가고.
*(김*연, 60대 남)*

*60대 노인 분들은 거의가 아니라 다 혈연 관계가 되어야지 내 가족이라고 딱 생각을 하지. (이*임, 60대 여)*

가족다양성 인식에 나타난 타자/타 세대와의 구별 짓기
본인(자신이 속한 세대)은 나이 든 사람(세대)보다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가족다양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2020 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3. 가족 개념을 자신과 타인에게 이중적으로 적용 중 (1자 효과 vs 3자 효과)

가족다양성에 관한 원론적으로 인정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
그러나 가족 형태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며, 본인에게 구체적인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면 망설이고 주저함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외국인인데 마음 잘 맞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약간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예의나 전통이나 이런 걸 전형적인 가족 기반에서 파생되는 게 많잖아요. (이*원, 30대 비혼, 여성)*

다문화 가정은 수용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이지,40대 기혼, 여성)*

다문화 가정도 부모님이 외국 사람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수 40대 기혼, 남성)*

결코 편안하게 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문화 가정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윤*정, 40대 기혼, 여성)*
아빠가 너무 한국 사람 같아요.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거 보면서 다문화 가정이라도 요즘에는 많잖아요. 윌리엄네도 보면 정말 괜찮은 거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들었고
*(이*정, 40대 기혼, 여성)*

갑자기 재혼을 하는 상대랑 저희 딸은 초혼이기는 하지만 그 상대방이 재혼을 한 가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엮이게 되면 그래도 OK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호, 40대 기혼, 남성)*

어떤 애기 있는 여자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 하겠다…
*저희 애는 처음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저도 결혼을 해서 살아 보니까 사실은 그런 길들은 내 가족이다 그러면 말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윤*정 40대 기혼, 여성)*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가정의 아주머니랑 합치시면서 가족이 됐었는데 사실 그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거의 찬밥이 된거죠. 중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졸업을 못시키고 일을 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때 들었어요. 옆반으로 반이 바뀌다보니까 얘기 들었는데 그런걸 보면서 지금 TV에서 나오는 화목한 가정이랑은 괴리가 좀 있었거든요 (원*주, 30대 기혼, 여성)*

*자신의 어떤 외로움이나 바운더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자기의 테두리 안으로 넣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면서 입양은 쉽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최*영, 40대 비혼, 여성)*

2020 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4. 가족다양성 및 가족 개념에 대한 관심은 적으나 교육적 효과는 있음

가족다양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의견이 다수… 무관심한 편이나
공교육에서 가족다양성 교육을 받은 세대에게는 교육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음.
수업에서 가족다양성 개념을 배운 것을 회상하고,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음

*가족다양성의 개념이 실생활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는 아니니까. 단어 자체를 들은 적은 거의 없는 거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적도 딱히 없어요.(박*연 20대 여성)*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저 얘기는 내 얘기 아니까 남의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 했던 거 같아요 (윤*정 40대 기혼)*

*다양한 가족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략) 혈족이 아닌 거나 특이한 걸 먼저 생각했어요.(정*훈, 30대 남)*

*다양성은 평범한게 아니라 조금 더 범위가 확장된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훈, 20대 남)*

*저는 가족 구성원의 종류가 늘었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혁, 20대 남)*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에 없기는 해요. (중략) 중립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노*진, 40대 남)*

*그냥 보면서 이런 것도 되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이*윤, 10대 남, 중학생)*

가족마다 다 모습이 다른 거니까 편견이 아니라 이해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준, 10대 남, 고등학생)*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주변에서 조금 생소해 보일 수도 있어서 신기하고 오히려 딱히 다른 거 생각 안 하겠지만 마이너스 되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이*윤, 남 중학생)*

*(다문화 가족 친구들을 보면)언어 쪽에서 되게 멋있어 보여요 (박*민, 여 중학생)*

*얼마 전에 가정 시간에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 구성 이런 거를 배웠어요. 원래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핵가족 입양가족 다문화가족 이런 거였어요. 어떤 가정이든 다 똑같은 가정이니까 차별하지 말자 이 정도 (안*주, 여 중학생)*

*중학교 때 다문화 가족이 피부 색에 차별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께서 차별 하지 말고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신 기억이 있어요. (이*진, 남 고등학생)*

*친구가 러시아인 엄마가 있고 아빠가 한국인인데 애들이 그거 가지고 놀렸다가 선생님께서 그 일로 교육 같은 거를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런이런 가족도 있고 차별하면 안 된다. (백*성, 남 고등학생)*

2020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1. 가족다양성에 대한 V-형 세대별 수용 특성을 보여줌.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양상은 10대> 20대> 30대>50>60>40 순으로
가족 개념의 변화와 가족다양성에 대한 수용도에서 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남

2.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 vs. 사회적 편견에 젖은 기성 세대

10대와 20대는 다양한 가족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용하는 경향...가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
30대 이후 세대에게 남은 고정관념의 잔상들...편견과 차별의 잘못은 인식

3. 가족다양성을 추구하는 비혼 여성 vs. 전통적인 가족을 선호하는 비혼 남성

남녀 공통적으로 결혼 및 가족구성에서 '경제력'의 중요성을 인식
가부장제에 대한 반발과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비혼 여성들은 다양한 가족을 적극 추구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약화되었지만 전통가족에 대한 지향성은 여전한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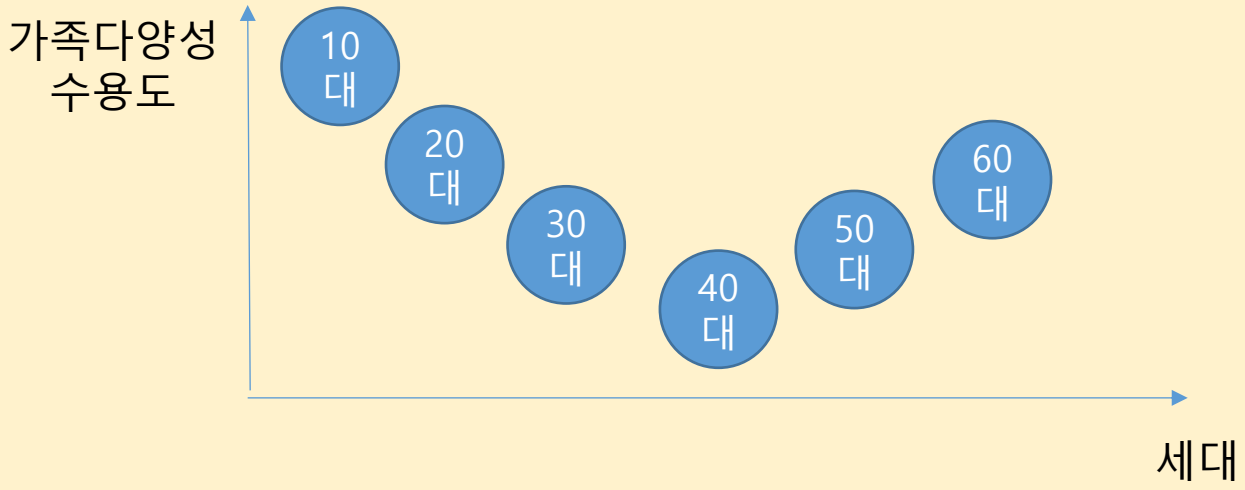
4 가족다양성을 이해하는 방식에서의 성별 차이(여성의 구체화 vs. 남성의 '추상적')

여성들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가족 개념과 가족다양성의 개념 변화를 인식...가족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남성들은 미디어의 간접 경험을 통해 가족다양성에 대해 인식... 가족다양성에 대한 '원론적', '추상적'인 견해

2020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1. 가족다양성에 대한 V-형 세대별 수용 특성을 보여줌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양상은 10대> 20대> 30대>50>60>40 순으로
가족 개념의 변화와 가족다양성에 대한 수용도에서 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남



2020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1. 가족다양성에 대한 V-형 세대별 수용 특성을 보여줌.

1) 10대와 20대 : 가족다양성에 대한 높은 수용과 개방적인 태도

- 교육: 유년시절부터 다문화 교육과 가족다양성 교육을 받음

초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다문화 교육.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어 한 달에 한두 번씩. (여2, 20대 대학생)

가족 다양성에 대해서는 중학교때 기술가정시간에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면서 들었었는데요.
*핵가족이라는 것도 배우고 대가족 조손가정도 배우고 한부모가정 등 가족의 형태를 배운적이 있었어요. (김*은, 10대 여)*

- 다양한 가족의 경험: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을 접하는 경험이 많음.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어쩌다 보니까 거의 2/3 정도가 한부모 가족이더라고요.(안*주, 10대 여)*

중학교때부터 항상 주위 돌아보면 다문화친구,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 부모님 각각 지방에 계셔서 혼자서 사는 친구,
한부모가정,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일상이었고. (10대 여, 여성)

2020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1. 가족다양성에 대한 V-형 세대별 수용 특성을 보여줌.

2) 30대 :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며, 스스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추구

- 비혼은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가족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

저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지금처럼 1인가구로 지내거나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동거는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한국사회에서 결혼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희생이 많다고 생각해요. 가족 내에서나.
*남편의 가족이나 저희 가족에게 따르는 희생이 요구되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저는 싫어해요. (홍*롱, 30대 여, 비혼)*

- 기혼은 아이 양육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을 접함으로써 가족 다양성의 이해가 높아짐.

제가 아이를 키우다보니까 어린이집에 보냈었잖아요. 거기에 엄마가 일본사람이래, 여기 엄마는 필리핀에서 왔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중략)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건 아니지만 많이 밀접해졌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원*주, 30대, 여성, 기혼)

저희 첫째 어린이집에 한명이 아빠가 없어요. (중략) 어린이집에 가족사진을 내는데 학부모참관수업 이런걸 하면 아빠가 없는 거에요.(김*경, 30대 남, 기혼)

2020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1. 가족다양성에 대한 V-형 세대별 수용 특성을 보여줌.

3) 40대 : 전형적인 가족 형태를 지지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 경향을 보임.

사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가정은 다양해 그런데 이 다양한 가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이런 가정도 있고 이런 가정도 있고 한 번도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 했던 거 같아요.(이*현, 40대 여, 기혼)*

저런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깊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었을 문제인데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저 얘기는 내 얘기 아니까 남의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같아요(윤*정, 40대 여, 기혼)*

- 아이 양육과 부부 관계의 위기를 겪는 등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시기이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됨.

2020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1. 가족다양성에 대한 V-형 세대별 수용 특성을 보여줌.

4) 50대와 60대 : 전통적 가족에 대한 향수와 가족 다양성에 대한 불가피한 수용

- 시대 변화가 가져온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

*세상이 바뀌어 가면서 (중략) 애들하고 어른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김*연, 60대 남)*

- 자녀들의 변화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수용

*애들도 그렇게 많이 바뀌고 요즘에는 부모들이 굉장히 예전 말로 자식이 상전이다 이렇게 하듯이 떠받들고 키우다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컸을 때와 지금의 애들을 보면 너무 다르다는거. 제 아이가 커가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진, 50대 여)*

2020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2.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 vs. 사회적 편견에 젖은 기성 세대

10대와 20대는 다양한 가족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용하는 경향...가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
30대 이후 세대에게 남은 고정관념의 잔상들...편견과 차별의 잘못은 인식

1)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젊은 세대
- **가족은 선택하는 것**

*요새 비혼주의가 많잖아요. TV같은데서 그런거 나오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본적이 있는데 저는 일단 입장이 결혼하기 싫으면 안하고 애 낳기 싫으면 안하고 다 선택의 영역이니까 그건 본인 못에 맡겨야 된다 하고(오*혁, 20대 남, 비혼)*

2)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 30대 이후의 세대들
- 가족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길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

저는 어렸을 때 부정적이었어요. 이혼에 대해서. 지금은 부드럽게 바뀌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변화는 있어요.
*부정적이지 않은데 저는 싫은 거에요.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도 보고, 그렇다고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내 자신은 안 된다 라는 정도 같아요. 남은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이*원, 30대 여, 비혼)*

2020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3. 가족다양성을 추구하는 비혼 여성 vs. 전통적인 가족을 선호하는 비혼 남성

1) 남녀 공통적으로 결혼 및 가족구성에서 '경제력'의 중요성을 인식

*비혼도 비혼인데 결혼을 해도 애를 조금 낳거나 안낳거나 이런 말을 했었어요. 비혼 자체가 다 좋은데 경제력때문인 것도 있잖아요. (김*호, 20대 남)*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해도 아이는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왜냐하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나면 계속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고 경제적 지원도 많이 필요해서 차라리 남편이 생긴다면 둘이서 부족하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김*찬, 10대 여)*

2) 가부장제에 대한 반발과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비혼 여성들은 다양한 가족을 적극 추구

*결혼하면 내가 안고 갈 손해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굳이 안 해도 지금 혼자 잘 지내는 걸 생각하면 굳이 결혼해서 내가 내 발목에 수갑을 채울 일이 있나? 싶어서 지금은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박*연, 20대 여)*
*지금처럼 1인가구로 지내거나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동거는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한국사회에서 결혼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희생이 많다고 생각해요. 가족 내에서나. 남편의 가족이나 저희 가족에게 따르는 희생이 요구되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저는 싫어해요.(홍*롱, 30대 여)*

3)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약화되었지만 전통가족에 대한 지향성은 여전한 남성

*저는 미래에 결혼 해서 아이 두명 정도 낳고 싶고 아내와 저는 맞벌이로 생계를 잘 유지하면서 육아에 신경 쓰고 화목한 가정으로 이런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평범하게 화목하게 사는 거.(이*진, 10대 남)*
*결혼해서 둘이 사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하고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른 형태의 가족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가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박*구, 30대 남)*

2020한국인들의 '가족' 개념은 세대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4. 가족다양성을 이해하는 방식에서의 성별 차이(여성의 구체성 vs. 남성의 '추상성')

1) '교육'과 '경험'을 통한 여성들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활동했어요. 국제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어떤 형태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글로벌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수업을하다 보니까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남*미, 30대 여, 비혼)*
*가족 다양성이란 워딩은 대학교 때 여성학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됐고요. 가족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사례가 있고 좀 그런 예시로 드라마도 보여주시고 영화도 보여주셨어요.(홍*롱, 30대 여, 비혼)*
*이웃 중에 재혼을 한 거예요. (중략) 너무 잘 사는걸 보니까 되게 보기 좋더라구요. 저렇게도 사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윤*윤, 30대 여 기혼)*

2) 남성들은 미디어의 간접 경험을 통해 가족다양성에 대해 인식하고 '원론적', '추상적'인 인식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매체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족의 형태라는 거를 막연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강현욱, 50대 남, 기혼)
*TV를 통해서 (중략) 많이 다양해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매체 통해서 많이 들어봤고(안*진, 50대 남, 기혼)*
*다양성은 평범한게 아니라 조금 더 범위가 확장된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이*훈, 20대 남, 비혼)*
*저는 가족 구성원의 종류가 늘었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오*혁, 20대 남, 비혼)*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에 없기는 해요. (중략) 중립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노*진, 40대 남성, 비혼)*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는 가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1. 가족 개념의 변화를 미디어를 통해 감지하고 있다

*옛날보다는 다양한 가족 행태에 대해서 드라마, TV에도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게 커진 것 같아요."(김*이, 50대 여)*

*"저런 프로그램(입양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계속 많이 방영이 되고 (중략) 지금 물론 시대가 변했지만 그런 (가족다양성) 교육을 필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정*욱, 60대 남)*

*"최근 들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TV에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들었고 그만큼 사회가 변한다는 얘기이고 시대가 변한다는 얘기니까 (가족) 다양성은 인정하는 얘기가 되는데."(김*연, 60대 남)*

"내가 옛날에 보던 TV프로하고 다르게 가정에 대한 다양성을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구나. (중략)
*우리가 자라 올 때 어떤 미디어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다르게 변화해서."(이*현, 40대 기혼)*

*가정 시간에 핵가족 대가족 이런 개념은 배웠지만 그렇게 요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거를 배운 적은 없고 지금 다양한 가족이 형성 되는 거를 매체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틀을 깨는….자연스럽게 방송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저런 가족 형태가 있지 하고 받아 들여지는 거 같아요. (강*옥, 50대 여성)*

2.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미디어에 반영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

<엄마의 정원> 그 드라마에서는 아이를 낳고 입양을 해서 데리고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그날 축제인 거에요.
아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양가족 유튜버, 4남매해피육아)

솔직히 TV에서 보여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게….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르신들도 되게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으신데
요새는 "입양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가끔 말씀을 하시거든요.
(30대 기혼, 윤*은, 여, 39세)

저희 때는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현재 지금 제가 저거 흘깃 흘깃이라도
한 번씩은 저희 애들이 보고 찾아 보고 짤로도 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자라면서 교육을 못 받았다고 그랬지만
아이들은 미세하게나마 계속 흡수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40대 기혼, 이*현, 여, 49세)

물론 단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랬었는데
미디어나 이런걸 통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원*주, 여, 39세, 기혼)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 미디어 재현에 관한 평가: 개인 경험과 미디어 재현 간의 불일치성 언급

1) “미디어의 재현이 내가 경험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분명히 다들 어딘가에서 결핍이 되어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것처럼 비춰지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게끔 만드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혼가정 자녀, 진예슬, 여, 24세)

드라마 같은 데서는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못 배워서 그렇지”
이런 편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다 착하고 **부모님이 한 명이라도 다 잘 자라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편견이 깨지지 않았나**..*
(중학생 수도권5, 안*주, 여, 16세)

미디어도 아이들 만화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어디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 우리 가족을 찾아볼 수 있는 걸까?***
(한부모가정 당사자4, 강*지, 여, 26세)

*이웃 중에 재혼을 한거에요. 처음에는 원래 결혼해서 애기 둘 낳고 사는걸로 알만큼 되게 화목하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아줌마다보니까 드라마같은걸 보면 재혼한 가족 중에 의견 충돌이나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걸 한번씩 보잖아요, 드라마 스토리상으로. 그런데 그런게 아니라 옆에 사는 이웃이 저도 봤을 때 약간 이질감 안들 정도로 너무 잘 사는걸 보니까 되게 보기 좋더라구요. 저렇게도 사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윤*은, 30대 기혼 여성)*

2) “미디어의 재현이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

인식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은, 그니까 속은 많이 변했는데,
그거를 다루는 것들은 아직은 되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혼가정 유튜버, 뚜부TV)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 미디어 재현에 관한 평가: 개인 경험과 미디어 재현 간의 불일치성 언급

(1) “현실보다 부정적으로 편향된 표현이 종종 보인다”

① 동정 받아야 하는 존재

항상 미디어는 뭐 없고, 다 ***부재하면 어쨌든간 슬픈 감정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제안하고 항상 그런 모습만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한부모가정 당사자4, 강*지, 여, 26세)

드라마나 영화나 ***할머니랑 살거나 할아버지랑 살면 다 꾀죄죄하게 했잖아요****.*
애기도 그렇고. 너무 불쌍하게만 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많고,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조손가정 자녀, 김*주, 여, 26세)

감정팔이는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역효과, 거부감이 드는 게 많아요.*
(이*원, 남, 39세, 미혼)

② 아직 결핍된, 완성되어야 할 존재

한부모들이 이제 나왔어서 뭐 관심도 받지만, 결국 메시지는....
많이 나오면 뭐해요, 결국은 다 짝 찾아서 가는 건데.
(한부모가정 당사자3, 오*방, 남, 53)

이혼을 했어도 그냥 한 사람이고 인격체일 뿐인데 ***재는 어디가 안 됐으니, 잘못 했으니까,***
어느 것이 좀 안 맞았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라고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혼가정 자녀, 진*슬, 여, 24세)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 미디어 재현에 관한 평가: 개인 경험과 미디어 재현 간의 불일치성 언급

(1) "현실보다 부정적으로 편향된 표현이 종종 보인다"

③ 사회문제 및 갈등을 부각하는 자극적인 표현

<부부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더 강해졌잖아요. ***헤어지면 너무 큰일나고,***
헤어지면 막 애가 가출을 하고.. (한부모가정 당사자3, 오*방, 남, 53)

기사들 특히나 "재혼가정인데 아버지가 딸을 성폭력 했다더라, 재혼가정인데
새엄마가 아이를 학대했다더라" 그런 식의 ***타이틀을 되게 자극적으로 뽑잖아요.***
재혼을 했을 때 불행하게 끝나는 결혼들 혹은 가족들,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다루는 것이 자극적이라서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재혼가정 자녀, 조*진, 여, 27세)

입양가족? 다문화가족? 이런 애들은 ***안 좋은 케이스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잖아요.***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슈화를 시켜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막 이슈화 시키니까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입양가족 당사자4, 이*열, 남, 48세)

<고부열전> 이거 참 이거는 언론에도 너무 많이 나온 건데.
고부열전에서 그 다문화가정 갈등을 해소하는 그 힐링 여행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너무 부각시켰고..*** (다문화가정 당사자2, 김*림, 여, 48, 중국)

④ 다름을 강조하여 부각시킴

자연스럽게 내보내면 되는데 ***굳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다르다 라고 해서***
나눠서 부각시키는 게 *좀..* (20대 남성, 오*혁, 남, 29세)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 미디어 재현에 관한 평가: 개인 경험과 미디어 재현 간의 불일치성 언급

(2) "실제보다 미화된 상황으로 묘사한다"

*그렇게 다같이 화목하게 모여서 하하호호 할 것만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좋게만 보이려 하고**..*
많이 오글거리고 보통 가족에서도 그런 식으로 있는 일이 없어서 공감이 잘 안 돼요.
(20대 여성, 장*리, 여, 27세)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너무 약간은 미화시킨 것도 많고** 왜곡된 것.*
왜곡이란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왜곡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렇게 투영되는 것 같지 않아서.
(입양가족 당사자4, 이*열, 남, 48세)

(3)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관습적 재현이 반복된다"

우선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다양한 가족의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클리셰라고 보통 얘기하죠.
저희 다 사람들이 보고 "저거 옛날에 봤던 거랑 비슷하네"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클리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혼가정 자녀, 장*슬, 여, 24세)

그 문화차이만을 활용해서 그 부부간의 모순이나 갈등을, 또 모국을 방문하면서
*서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정 당사자2, 김*림, 여, 48, 중국)

어떤 고정관념을 뒤집고자, 이제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분석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전형성...우리가 알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전형성을 재생산하는.. (언론학계 전문가, 김*희 박사)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미디어 환경변화로 1인방송, 해외 콘텐츠 등에서 차별화된 가족 재현을 수용하고 있음

*(기존 방송이라면) 동거커플이라는 게 되게 독자적인 장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냥 일반 커플이랑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공동체 유튜버, 같이사는사이)

"낳은 아이가 있는데 왜 입양을 해?"라는 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뤘었거든요, 채널에서...
저희 딸들이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 영상들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입양가족 유튜버, 4남매해피육아)

*학교에서 넷플릭스를 틀어줬거든요. <모던패밀리> 그거 봤어요. 게이도 나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적인 가족들도 나오고, 동거도 나오고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좀 신기했어요.* (노*영, 여, 16세)

*넷플릭스에서 외국영화를 많이 보는데...항상 로맨스도 그렇고 갑자기 한부모 가정이 나오고, 액션인데 한부모 가정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익숙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혜, 여, 19세)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제작진의 수용자 상과 실제 수용자 간 인식의 상충

○ 제작진들은 수용자의 이중성을 인식함

*요즘에는 사실 가족형태가 굉장히 다양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혼이라는 것도 예전과는 다르게 되게 내가 이혼한거 사실에 대해서도 되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재혼가정에서도 예전처럼 거리낌 없이 좀 말하는 가정들이 있고. **좀 편해진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모시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김*욱, PD)*

o 미디어가 기존 전통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강조

*그 다양한 가족이 생기고 그분들을 인정하고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단 사실 지금 기존의 방송들을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효, 우애,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외면하면 안되거든요. ...사실은 저렇게까지 강조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약간, 아, 이게 뭐,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너무나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기존의 방송들은. 예를 들어, 부자, 우리 집 가족, 혈연으로 묶인 가족을 너무 이렇게 내 인생의 힘이고, 가족의 부모님이 나의 뜰처럼 늘 계셔가지고 돌아올 곳이 있어서 늘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가족 중심적인 이야기를 너무 강조해서 이야기 할 때는 좀 갈등이에요."(김*진, 작가)*

o 혈연(아이)이 이어주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지지

*저희가 느꼈던게 그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들이 눈이 확실히 달라진거에요. 가장 큰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 두사람이 재혼을 하는 것보다도, 이 가족이 되는 거에 대한 거에 많은 관심을 주셨고. 또 가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포옹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시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김*욱, PD)*

*결혼프로이다 보니까, 신혼 부부들이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첫번째 댓글이 이거에요 '2년 본다' '1년 본다'. 1년 안에 이혼할거라는 얘기에요. 근데, 또 약간 한국 사람 특징으로, 아이가 있으면 일단 그런 얘기는 없어요. 결혼이나 부부의 완성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연에 대한 책임을 기본적으로 이게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뭐 일단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든 저 사람들은 저거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김*경, 작가)*

o 법적 제도(결혼)내에서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지지

*결혼하고보니까 '야재네가 좋다는데우리가 뭐라고얘기해'라고그 댓글의인식이 바뀌더라고요.그러면서 오히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투나 시기가 응원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저희도 좀 놀라기는 했어요.김*욱, PD)*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제작진의 수용자 상과 실제 수용자 간 인식의 상충

○ 지상파 프로그램의 주시청자와 시청자 반응을 고려한 점진적인 출연/재현 등을 추구

제작진들은 본인들의 프로그램 주요 시청자들을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여성으로 상정함

"(여성 시청자들이 많았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시청률 분석을 해보면 60프로가 여성이세요.
연령층은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는 40대 연령층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20대 30대 40대가 다 비슷하고
*대신 오히려 **60대 이상 시청자층이 좀 많더라고요, 50대 이상의 시청자층이 좀 많으신 편이 있더라고요.**(김*욱, PD)*

공중파는 좀 달라요. 잣대도 너무 다르고. (중략) 기성세대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성세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대도 그런 것 같아요.(**김*경, 작가)*

*저희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40대에서 60대. 60대70대80대. 5-60대 이렇게.(김*진, 작가)*

기존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가족을 시도하고 반응을 살피면서
시청자와의 타협의 지점을 찾아가는 단계적인 도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o 시청자의 감수성에 맞춰 가족다양성의 재현 방식을 조정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그 출연자와 같이 교감을 하는게** 가장 맞는거지(김*욱, PD)*

*사실 동거 중인 커플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청자분들의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커플은 저희가 모실 수 있겠지만 (**중략)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커플이 나왔을 경우에*
*그 출연자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고려가 많이 될 것 같아요"(김*욱, PD)*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제작진의 수용자 상과 실제 수용자 간 인식의 상충

o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닌 '조금' 새로운 가족다양성을 재현

방송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화제성을 무시할 수 없고, 시청률도 무시할 수 없는데,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그런_**나와는 좀 다른 부분의 지향점을 좀 가진 커플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거 같아요.(김*욱, PD)*

*프로그램의 기본이 **something new**이긴 한데, 그니까 가족으로서 부부로서 다른거(김*경, 작가)*

o 단계적인 가족다양성의 재현으로 나가가는 제작진의 방식

A 가족같은 경우에도 입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쑥덕댄대요. 막 '야 저기 있지 쟤네 입양했잖아'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참 보기 좋아'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오히려 막 '쟤는, 야 너 입양했다며' 이게 아니라, 그니까 그런게 그냥 그 인식이 그냥 고스란히 넘어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녹아들면서 오히려 더 그 다음 단계를 향해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에요.*
오히려 응원해주는 분위기? 그니까 B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았으면 '야 야 쟤네 재혼가정이잖아' 이런 것들이,
재혼가정임이 이미 알려지니까 오히려 그 다음 과정으로 오히려 막 '오 축하해요' 막 '오 C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의 방식이 한단계 더 나아간 방식?***
*저는 예 그게 오히려 더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바이고 좀 관찰예능들이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김*욱, PD)*

Q: 동거커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A: 네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해요.***
Q: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A: 그게 그니까 지금 하하. 네 **도전이죠.** 또 한번 어떻게 할지.(김*경, 작가)*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제작진의 수용자 상과 실제 수용자 간 인식의 상충

○ 미디어 제작진이 생각하는 가족다양성의 수용 양상은 세대별 수용자의 인터뷰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

- 수용자 인터뷰 결과, 40대를 제외한 전 세대가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날로 확대되어 가는 가족다양성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상파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인 50대 이상의 여성들도 사회적 변화를 실감하고
  불가피한 수용 양태를 보인다는 인터뷰 결과와 엇갈리는 수용자 상을 지닌 것임.

○ 결과적으로 미디어 제작진이 바라보는 수용자상과 실제 수용자들이 가진 가족 다양성의 인식 불일치는
미디어에 재현된 가족다양성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불러왔다고 이해될 수 있음.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당사자들)이 기대하는 미디어의 역할, 1인 미디어 채널의 역할론

○ 다양한 가족구성원 유튜버들은 기존 미디어의 가족다양성 재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

가족다양성 채널의 크리에이터들은 미디어가 실제 (가족다양성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의 수준을 못 따라가고,
이들을 과소 재현, 왜곡, 과장된 재현, 결핍된 존재로서 다루는 방식에 대해 비판함.

- 미디어 재현이 수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못 따라감

" *옛날보다는 방송에서 이제 좀 오픈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한번다녀왔습니다> 되게 재밌고 인기라면서요.*
인식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은, 그니까 속은 많이 변했는데, 그거를 다루는 것들은 아직은 되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뚜부 TV)

"동거 커플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영화는 외국 영화들이 대부분이기도하고
한국영화에서는 잘 접한 적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중략) 옛날에 그 옥탑방고양이..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남녀가 살면은 아무 관계 아닌 남녀가 한 집에 살면 큰일 나는 걸로 보이는 세대였으니까
지금은 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같이사는사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은 일찍부터 깨졌었는데, 미디어는 그걸 못따라가죠." (뚜부 TV)

- 부정확한 언론보도

"아이를 데리고 전제위탁을 해봤다가 안 맞으면 보내고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신 거에요. 그런 기사들은 좀 안 써주신던지, 아니면 그런 기사를 쓰고 싶으면 좀 더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아동쇼핑이, 이게 말이 너무 무섭고 자극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4남매 육아)

- 사연의 극대화와 비현실적인 극 전개

"Q: 동백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입양가족들이) 보시기에는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꽤 많았던 거네요.
A: 반반인 거 같아요. 반은 비현실적이고, 반은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반은 그래도 공감이 됐으니까.
Q: 그러면 그 전의 드라마나 미디어들은 얼마나 대체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A: 맞아요. 그냥 환상의, 환상의 그거죠. 환상".(하늬TV)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당사자들)이 기대하는 미디어의 역할, 1인 미디어 채널의 역할론

o (기존 미디어는) 결핍된 존재로 다양한 가족을 다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드라마 내용들도 보다는 이 사람의 아픈 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어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게 보면 항상 가정 얘기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냥 흘려서 봤던 내용이라면은, 어, 뭐 지금은 그런게 눈에 좀 띄기는 하죠. 그렇게 아픈걸로 연결 안해도 되는데."

"저희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충분히 저희끼리 행복하게 재밌게 뭐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약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았고, (중략)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를 봤을 때
'아 저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저런게 있구나'라고 또 그걸 받아들여버리니까
그게 또 전반적으로 사회인식이 되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에요.
그래도 요즘 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서,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4남매 육아)

o 개인 방송을 통해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증가

"싱글맘들이나 한부모가정 분들이 솔직하게 이제 자기의 아픔이나 이런 상처들을 꺼내놨을 때 그걸 오히려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하늬TV)

"처음에는 동거커플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략) 지금 최근 거를 보다 보면은 그냥 그 동거커플에 대한 건 아예 없어지고 정말 그냥 일반 커플을 보는듯한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이게 좀 변화가 하고 있는 거 그냥 우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주는 거 같은 느낌? 그런 거를 가끔 받을 때는 있어요."(같이사는사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 몰랐던 부분들까지 다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4남매 육아)

지금까지 1인 크리에티터들의 활동을 통해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확장되었다고 평가,
심층적인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당사자들)이 기대하는 미디어의 역할, 1인 미디어 채널의 역할론

o 다면적인 다양한 가족의 재현으로 심층적인 이해와 편견 해소 가능

저는 아직은 좀더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한부모가족이. 왜냐하면, 다 이혼을 해도 다 스토리가다 달라요. ...좀더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나오면 더 좋죠".(하늬TV)

"제가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할 때 정말 단 한 개의 채널도 없었는데 (중략) 좀 숨길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조금이나마 유튜브상 해서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궁금증을 해소하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올리셨더라구요.(중략) 아무리 저희가 잘 되어봤자 구독자 5만명 정도. 유튜브 전체 파이로 보면은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데 아무래도 그 몇 년간에 계속해서 동거커플 호기심이나 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같이사는사이)

"이제 그런 당사자들 있잖아요, 저희처럼. 그런 당사자들이 조금은 더 용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뚜부TV)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육아방식이, 이 한부모의 이 또 다른 편견이 될 수가 있는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아 이혼하면 이러네' 뭐 '한부모들은 이러네' 막 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하늬TV)

"많은 시도들이 좀 있어야될 것 같고요, 사례도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뚜부TV)

"저 같은 이렇게 입양을 좀 하는 가정이 많이 오픈을 좀 해주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단편적으로나마 좀 보여준다면 이런 모습들, 이런 편견들이 그래도 조금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예 시작을 하게 됐어요" ."(4남매육아).
"저 이외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아이들의 일상을 좀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어 이 채널에서 보시는 당신들이 낳은 아이들이나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나 똑같은 아이들이고 똑같이 어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똑같은 아이들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4남매육아).

2020 한국인들에게 미디어의 가족 재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당사자들)이 기대하는 미디어의 역할, 1인 미디어 채널의 역할론

기존 미디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재현
→이에 대한 불만으로 1인 크리에이터가 나서게 됨.

- 1인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은 기존 미디어가 지닌 재현의 부족함과 편견을 다면적이며 심층적인 제시를 통해 **보완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일반 수용자들에 대한 노출과 영향력은 기존 미디어를 통해 인식 개선이 가능한 반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심층적이며 다면적인 이해는 해당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미디어 활동 참여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잠정적 발견 06

미디어의 가족 재현에 대한 제언

미디어의 가족 재현에 대한 제언

다양한 가족 당사자들의 제언

다문화 가족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역할이라던가 그 사람이 그런 가지고 있는 장점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정 당사자3, 이*연, 여, 38, 베트남)

백인 위주나 특정 사람들한테만 편향된 프로그램보다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외국인들이라든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서 ***밝고 따뜻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50대 미혼, 김*이, 여, 53세)

등장인물들도 다문화가정 ***그런 걸 문제시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여성, 장*리, 여, 27세)

조손 가족

재미 있게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는데 …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항상 병 관리나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생각은 항상 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할 수 있는 시골에서 재미 있는 놀이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포인트 하나 잡아서 하면 참 재미 있겠다.
(40대 기혼, 이*현, 여, 49세)

한부모 가족

이 특정 나이대 아이 한 그룹의 얘기만 들어갖고 그걸 정의내려서도 되게 위험한 얘기고, 예. 다 전체적인 그런 정보가 쌓여있는. (한부모가정 당사자2, 김*환, 남, 43세)

너무 쥐어 짜내듯이 한부모 가족은 불쌍해 이런 내용도 담지 않고 그렇다고 과하게 밝은 척 너무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일상 모습 그대로를 담아 낸 다큐 같은 거나 예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수도권5, 안*주, 여, 16세)

입양 가족

이제 미디어나 드라마나 뭐가 된다 그러면은, 좀 ***균형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 ***입양되어서 세워진 가족도 일반 가족하고 특별한 게 없구나****,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쥐어뜯고 똑같이 또 화해하고, 똑같이 미워하면서도 또 아프면 그냥 서로 그냥 못 살겠다고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가정이랑 똑같구나.* (입양가족 당사자4, 이*열, 남, 48세)

뭐 드라마 같은데서 "야, 입양이나 출산이나 똑같아" 이런거 한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입양가족 당사자2, 권*영, 남, 50세)

재혼 가족

서사의 방향은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 그냥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서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입체감이 생기고 그 입체감이 결국 그 사람이 현실에 살아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는 느낌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혼가정 자녀, 조*진, 여, 28세)

이혼 가족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가정 자녀, 진*슬, 여, 24세)

미디어 매체마다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빈도는 늘리되 부정적인 요소들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스러운걸 추구하는 방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혼가정 자녀, 진*슬, 여, 24세)

미디어의 가족 재현에 대한 제언

전반적인 미디어의 가족 재현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더 많이 다루어야 한다."

소재를 찾으면서 접근을 할 때 좀 다양하게 다 포함을 일단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비율만큼 미디어에서도 ***일단은 개수 자체도 늘려서 다뤄줘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제 특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테니까요****.* (재혼가정 유튜버, 뚜부TV)

계속 보여주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이 이미 살고 있다. 네가 뭐 동의를 하던 말건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시민단체 전문가, 엄*희 활동가)

"자극적인 연출보다는 현실적인 재현이 필요하다."

일반적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접근해서 보여줘야 할 거 같아요. 소재거리나 '어떻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바라볼까'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상황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20대 여성, 윤*진, 여)

현실이 반영돼 있으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 텐데 ***너무 짜여져 있으니까 현실에 안 와닿아요****.* (김*현, 여, 23세)

"편견 없이 화목한 모습도 조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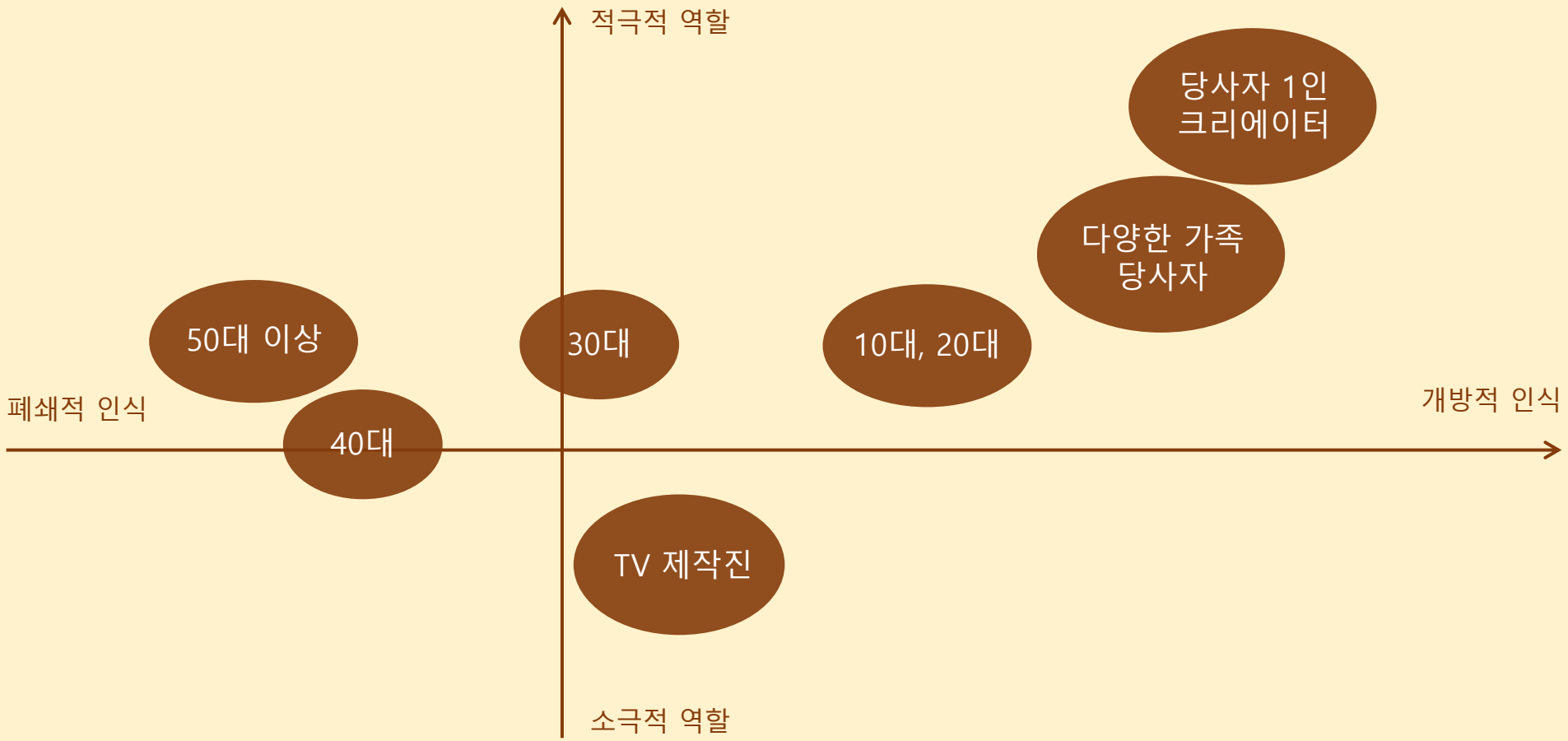
밝고 건강한 친구들이 나와서 다 같은 친구들이라고 ***이질감 없이 섞여서 지내는*** *걸 보면 좋겠어요.* (30대 미혼, 정*훈, 남, 37세)

긍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이런 가정에도 다 재미 있게 즐겁게 살고 잘 성장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출이 많이 되어야 사회적 편견이 줄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수, 남, 42세, 기혼)

가족다양성과 미디어 재현에 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식 지형

X축 : 가족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Y축 : 가족 인식 변화를 위한 미디어 역할에 대한 기대



감 사 합 니 다